

기업 매출액 증가, 2년 반만에 마이너스

지난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첫 감소세이자 가장 낮은 수치다. 반도체 수출이 줄고 건설업 성장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4%로 전기의 0%에서 상당폭 감소했다. 지난 2016년 3분기 -4.8%를 기록한 이후 첫 마이너스다. 다만 총자산증가율은 회계상 장부 기업 효과로 1.8%에서 3.2%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했다. 이는 외부

한국은행, 1/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반도체-건설업 부진 영향...수익성도 ↓

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1만 7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매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에는 반도체 등 제조업의 영향이 컸다. 제조업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전기전자와 석유화학 중심의 8.5%에서 -3.7%로 감소했다. 특히 기계·전기전자는 전분기 -1.9%에서 -9%로 마이너스 폭이 심화

다. 석유화학은 전분기 19.4%에서 1.4%로 줄었다.

비제조업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2.6%에서 -0.7%로 돌아섰다. 건설업은 전분기 -4.3%에서 -6%로 감소세가 증가했다. 전기가스는 전분기 6.9%에서 -1.8%로 감소전환했다.

수익성도 다소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액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3%로 전년 7.5%보다 내려갔다. 기업들이 불건 100원 어치를 팔아 세금을 빼고 거둬들인 이익이 5.3원이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제조업 이익률이 9.1%에서 5.7%로, 비제조업은 5.4%에서 4.0%로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률이 각 7.7%와 8.8%에서 5.1%와 5.9%로 감소했다.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전기말 82.1%에서 86.7%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는 21.8%에서 22.8%로 올랐다.



5년 만에 7배 성장...대세는 가정간편식

이마트 밀리언셀러 제품 8종
매출액 340억~2490억 급성장
1인·맞벌이 가구 증가 영향

대세는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이다.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가 2013년 가정간편식 브랜드 '피코크'를 내놓은 이후 올해까지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한 제품은 모두 8종이었으며, 이들 제품 판매량은 약 1300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맞벌이 가구 증가 등이 가정간편식 수요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피코크는 매출액은 출시 원년에 34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2490억원까지 성장했다. 그 사이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에서 2017년 28.6%까지 늘었다. 업계는 가정간편식·밀키트 등 간편 조리 음식 시장이 3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누적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제품은 2013년 10월부터 판매돼 271만개 팔린 '한우곰탕'(3180원)이다. 곰탕을 만들기 위해 사골을 10시간 넘게 끓여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짜게나 국 육수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한우사골·잡뼈 매출은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

2위는 '육개장'(198만개), 3위는 '새우볶음밥'(179만개), 4위는 '차돌박이 된장찌개'(141만개), 5위는 '초마점빵'(140만개)이다. 특히 초마점빵의 경우 맛집 요리를 가정간편식으로 즐기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던 2015년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초마 백점빵, 초마 짜장, 초마 탕수육 등 관련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됐다.

6위는 '소고기 미역국'(137만개), 7위는 '녹두 삼계탕'(122만개), 8위는 '소고기 무국'(110만개)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군에 걸쳐 피코크 밀리언셀러 상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레시피 연구 및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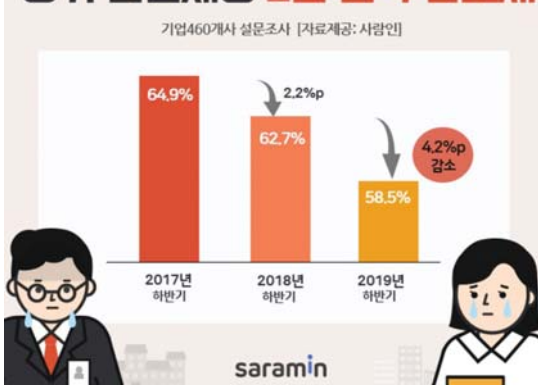
중소기업 신입 채용, 2년 연속 감소세...초봉 2609만원

사람인 중기 460개사 조사
"하반기 채용 계획" 58.5%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중소기업 46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5%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2017년 하반기(64.9%)에서 2018년 하반기(62.7%) 2.2%p 감소에 이어, 올해는 4.2%p로 하락폭이 더욱 컸다.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 규모는 1911명으로 기업 1곳 당 평균 7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반기 신입 채용 시기의 경우

중기 신입채용 2년 연속 감소세



'수시 채용을 진행'(38.7%)한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7월'(25.3%), '9월'(14.5%), '10월'(7.4%), '8월'(7.1%), '11월'(4.5%)에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을 채용하는 분야로는 '영업/영업관리'(26%),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조/생산'(20.1%), '서비스'(17.1%), '연구개발'(11.5%), IT/정보통신'(10%), '마케팅'(8.0%)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직무 적합성'(53.5%)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예의 및 인성'(19%), '인재상 부합'(13.4%), '전공'(4.8%), '직무 관련 자격증'(3.7%), '하루바이트 등 사회 경

험'(1.9%), '인턴 경험'(1.5%)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신입사원들은 얼마의 초봉을 받게 될까.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2609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00만원(16.7%), 2800만원(10.4%), 2600만원(10.4%), 2200만원(9.3%), 3000만원(8.9%), 2500만원(7.8%)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하반기 채용시장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직무적합성 평가 강화'(27.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경력직 채용 증가'(23.9%), '인성 평가 강화'(14.1%), '공채 폐지 및 수시 채용 강화'(10.2%), '중고신입 선호현상 뚜렷'(9.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4.8%), '채용 비리 근절'(3.3%) 등이 이유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스

KT&G, 필연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 '신제품 2종' 내놔



케이티앤지(KT&G)는 필연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인 '핏 골든 파이프'(Fit Golden Pipe)와 '핏 체인지

더블유'(Fit Change W) 2종을 내놓는다고 18일 밝혔다. '핏 골든파이프'는 신사들의 담

배라고 불리는 파이프 담배에서 착안해 개발한 제품이다. 파이프 담배용 연초인 카벤디쉬를 함유한 오리진 타입이다. 카벤디쉬는 열·중기 처리 후에 발효·숙성까지 거치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흡연감이 유사하고 목 넘김이 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신제품인 '핏 체인지 더블유'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맛과 시

원함을 동시에 경험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적의 블렌딩을 통해 필연형 전자담배 특유의 짠맛이 적고 맛과 향이 일관되게 지속된다.

KT&G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핏' 출시와 '핏 체인지' 출시 이후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를 존중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핏 골든파이프'와 '핏 체인지 더블유'는 전국 편의점과 면세점에서 19일부터 판매하며 가격은 각각 4500원이다.



호남신문

☎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증시 불만에 채권형펀드 '뜨고' 주식형펀드 '지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체 채권형펀드에는 193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국내 채권형펀드에서 1802억원이 늘었고 해외 채권형펀드는 132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외 채권형 펀드 설정원본은 116조173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 거래일보다 238억원 증가했다. 순자산총액은 119조406억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887억원 늘었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15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최고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닷새만에 216억원이 순유입됐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는 315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를 연속 순유출됐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 설정 원본액은 80조2902억원으로 969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총액은 78조7862억원으로 2176억원 감소했다.

뉴스스

광주, 대안민족!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